光州日報 Weekend

제17659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7년 1월 20일 (음력 12월 2일) 토요일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20(土)	21(日)
구름많음 -2 / 8℃	구름많음 0 / 9℃

News

- 헌재소장 인준안 통과 ②
- 저소득층 아동 요리교실 ③
- 신지애 프로암대회 1위 ⑱

Jeollado

- 그 사람-박상구 前회장 ⑦

Entertainment

- 왕년의 가수들 돌아온다 ⑧
- 로보트 태권V 다시 날다 ⑨

Wellbeing

- 식품 집중 탐구-도라지 ⑬

■ 유니세프 선정 '아기에 친근한 병원' 광주 1호 엔젤산부인과

산모들이 19일 오전 채양희 간호과장의 지도에 따라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다. 엔젤산부인과는 매일 오전 산모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모유수유 교육을 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엄마젖 먹는 것은 아기의 권리"

6년동안 '모유수유 운동' 앞장
출산 후 30분내 엄마젖 물리기 등
까다로운 유니세프 실사 모두 통과

광주시 남구 풍암동 엔젤산부인과. 여느 산부인과 병원과는 조금 다르다. 이곳에서 출산한 산모는 출산 30분 안에 반드시 모유를 먹여야 한다. 산모와 아기는 한방을 쓸 수 밖에 없다. 당연히 신생아실은 없다. 출산 전에는 모유 수유와 관련된 교육도 받아야 하고, 육아 중에도 가끔 모유를 먹이는지 확인받는다.

전 세계적으로 '엄마젖 먹이기 사업'을 벌이고 있는 유니세프(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는 지난 2002년 이 병원을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으로 지정했다. 광주에서 유니세프의 공인을 받은 것은 이 병원이 처음으로, 올해로 6년을 이어 오고 있다.

2000년 개원한 신생 병원이 유니세프의 지정을 받은 것은 이 병원 의료진들의 남다른 노력이 있었다.

박창수(46) 대표 원장은 처음 모유수유운동을 시작할 때만 해도 고민을 거듭했다고 한다. 모자가 함께 쓰는 병실은 산모와 아기를 분리하는 병실 보다 규모가 커야하기 때문에 설비비가 더 들게된다. 직원들은 수시로 받아야 하는 모유수유 교육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고, 교육에 따른 추가 시설·인력도 큰 부담이었다. 산모들도 필요성은 알지만 반응은 별로였다.

"엄마 젖 먹는 것은 아기의 권리입니다. 모유를 먹은 아기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합니다. 엄마의 건강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분유 먹이는 것이 너무 일반화되어 있어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유니세프의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은 산모와 아기가 한 방을 쓰며, 태어난 지 30분 이내에 엄마 젖을 물리게 하는 등 이 단체가 제시한 엄마 젖 먹이기 10단계를 지키는 병원에게 주어지는 칭호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매년 수백개의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한 뒤 15개 병원을 실사대상으로 선정한다. 현장 실사를 통해 보통 한해에 3~5개 병원만이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으로 지정한다. 선정된 후에도 부정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산모 추적 조사를 통해 최소 70~80%가 모유 수유를 계속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박탈된다.

까다로운 심사 때문에 지난 1996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됐지만 현재 전국에서 57개 병원만이 지정돼있다. 광주지역에서는 엔젤산부인과 이후 모아, 에덴, 보람산부인과 등 4개 병원이 지정됐다.

엔젤병원에서 출산한 정모(30)씨는 19일 "처음에는 직장생활 때문에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려고 했는 데 병원의 교육으로 생각을 바꿨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법원 '당헌개정 효력 정지' 수용

與 全大개최 불투명

당원협의회장 선거도 무산될 듯

기간당원제를 폐지한 열린우리당 당헌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 들여짐에 따라 오는 2월 14일로 예정됐던 여당의 전당대회는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 〈관련기사 2면〉

이에 따라 천정배 의원이 탈당을 시사하는 등 통합신당파를 중심으로 '전대 무용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분당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당헌 개정을 전제로 추진돼왔던 지역 당원협의회장 선거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 51부(부장판사 박정헌)는 19일 열린우리당 일부 당원이 당을 상대로 '기간당원제 폐지'를 골자로 한 열린우리당 당헌 개정안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번 당헌 개정 결의는 재적 중앙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아니한 우리당 비상대책위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돼 무효"라고 결정의 요지에 대해 설명했다.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개정된 당헌을 기초로 대의원 선출을 포함한 전당대회 일정을 추진해 왔으나, 당헌 개정권을 위임받지 못한 비대위가 개정한 당헌 자체가 무효라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복병을 맞게됐다.

우리당은 법원이 결정이 내려진 이날 오후 긴급 대책위를 열고 중앙위원회를 재소집, 당헌 개정 재표결 방침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재표결이 이뤄진다해도 중앙위 재적인원 가운데 적어도 3분의 1 이상을 장악한 사수파가 이를 거부할 경우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대 무용론' 확산과 함께 신당파의 탈당 움직임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북핵 6자회담 내달초 개최

北-美 BDA 내주 후반 열릴듯

북핵 6자회담이 2월5일부터 시작하는 주에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과 미국간 'BDA(방코델타아시아) 실무회의'는 이달 22일부터 시작하는 주의 후반부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북핵 문제에 정통한 복수의 외교소식통이 18일 전했다.

외교소식통은 "베를린 북미 회동이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됐다"면서 "이번 회담에서 주로 논의된 북핵폐기를 위한 초기이행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호혜조치의 내용에 대해 양측이 추가 검토한 뒤 본격적인 협상을 전개하는 쪽으로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BDA 실무회의의 경우 지난달 베이징 6자회담에서 양측이 잠정적으로 합의한 '22일 시작주에 개최한다'는 원칙을 준수하되 베를린 회동 결과를 점검하는 시간을 감안해 주 후반에 회의를 개최하기로 양측이 입장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를린 회동을 마친 힐 차관보는 19일 인천공항에 도착, 6자회담 개최시기와 관련, "2월18일 설 전에 개최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차기회의 개최날짜는 중국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BDA 실무회의와 관련, "잠정 개최날짜는 있으나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 외무성도 이날 힐 차관보와 김계관 부상간의 베를린 회담 사실을 확인하면서 일정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